

조락제, 한국 국회의장 우원식 회견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조락제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장 우원식을 회견했다.

조락제는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6월 국가주석 습근평은 한국 대통령 이재명과 통화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대해 중요한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조락제는 중국은 한국과 함께 랑국 정상의 전략적 인솔 아래 량자 관계의 지속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한국 국회의장과 밀접한 교류를 통해 량국의 실질적 협력에 법적 보장을 제공하고 중한 관계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은 중국이 '9.3' 항일전쟁 승리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한다면서 한국은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의 중요한 리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한중 관계를 더욱 성숙되고 안정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한국 국회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로씨야인 무비자 정책 시범 시행



7월 21일, 상해 전자방(田子坊) 내 한 상점에서 옷을 고르고 있는 로씨야인 관광객. / 신화넷

중국이 로씨야를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외교부 대변인 곽가군은 2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인적 교류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5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 로씨야 일반려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이 시범 시행된다.

곽가군에 따르면 로씨야 일반려권 소지자는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교류·경유 등 목적으로 중국에 30일 이내 무비자 체류할 수 있다. 중국측의 이번 결정이 로씨야 관광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

인다. 로씨야여행사협회는 무비자 정책으로 로씨야 관광객의 중국 류입이 30~40%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씨야여행중개업협회 회장 알렉산드르 브라긴은 "무비자 정책 시행 발표후 중국행 항공편과 숙박 검색량이 두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중국 여행 수요가 3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로씨야연방보안국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광 및 개인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로씨야인은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한 83만 6,600 명을 기록했다.

항일전쟁 영렬 관련 중요 데이터 발표

8월 31일 오전,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 보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 마비용과 국가문물국 부국장 손덕립은 제4차 국가급 항일전쟁 기념 시설, 유적지 목록과 유명한 항일전쟁 영렬 및 영웅단체 명록, 항일전쟁 기념 시설과 유적지, 유물 수리보호 등 상황을 소개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50여만건에 달한다. 20개 항일전쟁 주제 혁명문물보호리용구역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었고 연안 국가문물보호시범구가 성공적으로 설립되었다.

'14.5' 기간 20여개 항일전쟁기념관을 신축 및 확장하고 50여개 항일전쟁기념관의 전시를 개설했다. 전국에 등록된 항일전쟁기념관은 257개에 달하여 항일전쟁기념관 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

의 저명한 항일 영렬 및 영웅단체 명록을 발표했다.

최근 당중앙과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제4차 명록을 발표하였는데 34개의 시설과 유적, 41명의 영렬, 2개의 영웅단체가 포함되었다. 이번 작업은 준비에서 발표까지 5개월이 소요되었다.

2.7억원 투자해 43개 항일전쟁 련사기념시설 건설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전국 년평균 항일전쟁 주제 전시회 500여차례 개최 6,000만명 이상 관중 항일전쟁 유적지와 기념관 방문

소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항일전쟁 주제 전시회를 500여차례 개최하였고 6,000만명의 관중이 항일전쟁 유적지와 기념관을 방문했다.

96개 항일전쟁 유적지와 기념관이 전국애국주의교양시범기지로 선정되고 11개 성에서 38개 항일전쟁 문물 주제 관광 로선을 선보였다. 여러 항일전쟁 유적지와 기념관이 혁명전통교양기지, 국방교육기지, 중소학생 연구실험교육기지, '대상상정지수업' 실천교육기지로 건설되었다. / 인민넷-조문판

항일전쟁기념관 체계 기본적으로 완성

회의에서 소개된 바에 따르면 항일전쟁 문물자원 기초 조사가 기본적으로 완료되었다. 전국 범위에서 항일전쟁 주제 이동 불가능 문물 1만여건, 이동 가능 문물은

항일전쟁 영렬·영웅단체 4차례 발표

회의에서 소개된 바에 따르면 2014년, 2015년, 2020년 당중앙과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260개의 국가급 항일전쟁 기념시설, 유적지 목록과 1,085명

회의에서 소개된 바에 따르면 련사원들의 품질 향상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나라는 총 2.7억원을 투자하여 43개 항일전쟁 련사기념시설 건설 항목을 실시하고 20억원을 지원하여 전국 현급 이하 련사기념시설을 정비했으며 7.7만여개의 분산되어있는 련사묘지를 련사릉원으로

한국, 중국 항전 승리 기념대회에 큰 관심



3일, 한국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대회 중계 화면을 보고 있다. / 신화넷

3일,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대회가 북경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상해송호항전기념관, 프랑스인 기증 항전 사진 공개

프랑스인이 기증한 8·13 송호회전 시기 촬영된 희귀 사진들이 2일 상해 송호항전기념관에서 처음으로 공개, 3일부터 정식 전시되었다.

이 사진들은 프랑스인 마르쿠스 드레츠가 프랑스 주재 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에 기증한 618장의 력사사진으로 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인화된 것이다. 이번에 전시된 88점은 모두 송호회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부 사진은 보기 드문 장면을 담고 있다.

그중 한세트의 옛 사진들은 당시 상해 프랑스 조계지의 높은 지점에서 촬영된 것으로 1937년 8월 중순과 말에 상해 남시지역(현 황포구)이 폭격당한 장면을 기록했다. 또 상해 서북방향으로 촬영한 사진에는 호서지역이 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 기록되어있으며 우다크가 설계한 유명 건축물 노르만아빠트(현 서회구



2일, 상해 송호항전기념관에 전시된 항전 사진들. / 신화넷

무강빌딩)가 처음으로 송호회전 관련 옛 사진에 등장했다. 기증된 사진들은 수집 시 시각적 대비에 특별히 주목했다. 레를 들면

1936년 평화로운 통화사, 1937년 초강만지역에 막 건설된 상해시박물관 등의 사진들과 이들이 파괴된 후의 사진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지방사지(史志) 기록에 따르면 송호회전은 3개월간 지속되었으며 상해 남시지역만 일본침략군의 폭격을 19차례나 받았다. 상해송호항전기념관 관장 공상준은 이번에 새로 소장하게 된 사진들은 송호회전 력사 영상자료에 대한 유력한 보완으로 일부 사진들은 공백을 메우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마르쿠스는 앞서 파리 기증 현장에서 이 사진들은 자신의 외조부 로제 피에르 로렌스의 생전 소장품이라면 이 사진들을 기증함으로써 더 많은 서양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이 력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3일, 대형 매머드(猛犸象) 예술품이 로씨야 울라지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극동거리' 전시구역에 전시되었다. 제10차 동방경제포럼은 9월 3일 로씨야 울라지보스토크에서 개막되었다. / 신화넷

富强民主文明和谐
自由平等公正法治
爱国敬业诚信友善

中华有福
助人是福

图说 我们的价值观

天津大郑剪纸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